

# 태백선 라멘교 조동철교(鳥洞鐵橋)

## 이 아픔 알고 나면 누구도 연탄재 함부로 밟로 치지 못한다

이영천 | 작가

살아가면서 제일 잘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배려(配慮)'다. 이는 측은지심(惻隱之心)과는 또 다른 의미로 철학에선 '타자에 대한 현존재의 이해적 관계 방식'으로, 사전적으론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쏟'으로 규정한다. 추상적인 개념이면서 동양사상의 4대 덕목인 인의예지(仁義禮智) 중엔 인(仁)에 해당한다. 사람 사이에도 배려라는 다리가 늘 놓여 있다면,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다리는 등을 굽혀 그 위를 지나는 모든 것을 배려한다. 제 몸을 내리누르는 모든 압력과 하중을 견뎌낸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다리 형식이 있다면 이는 필시 '라멘교'일 것이다. 라멘교는 구조체 구분 없이 교각과 상판 등 상·하부 구조를 일체형으로 만드는 부정정구조물(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 不靜定構造物)이다. 이는 수학적 계산 식만으로 모든 부재력과 반력을 구할 수 없는 구조물이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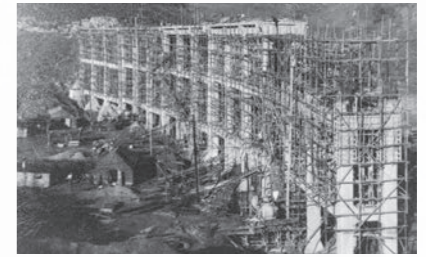
태백선 라멘교로 만든 조동철교 위를 사복음으로 향하는 형형색색의 무궁화호 관광열차가 지나가는 모습. 주변 풍경이 평화롭기만 하다. ©이영천

이렇듯 라멘교는 상·하부 구조를 일체형으로 만들었기에 다리가 통째로 넘어지지 않는 한 낙교(落橋)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점으로 도로나 철로를 횡단하는 곳에 주로 설치한다. 그래서 라멘교를 다른 시설물을 돕고 배려하는 다리라 부르는 이유다.

### 특이한 라멘교

강원도 정선 신동읍에 특이한 모양의 다리가 있다. 마을이 들어선 계곡 사이를 잇는 태백선 철도를 지지하는 라멘교다. 다리는 예미역과 조동역 사이 지방도 421호선의 지선인 새골길을 횡단한다. 높은 건물을 짓듯, 두 겹 교각과 수평재의 입체배열이 상판을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속이 비어 있는 직육면체 기본단위 가로 3칸×세로 3칸 라멘교를, 단단한 지반 위에 연이어 세웠다. 총 6개 라멘교를 이어 붙여 상부에 레일을

깔았다. 멀리서 보면 직육면체의 텅 빈 뼈대만 남은, 3층 높이의 벽체 없는 커다란 기둥이 연속해 서 있는 모습이 연상된다. 조동철교(鳥洞鐵橋)다. 새가 날아다니는 높이여서 그런지 마을 이름도 조동이다. 험준한 산악이다. 조동철교는 1966년에 만들어졌다. 함백역을 거치지 않고 예미역에서 조동역까지 높은 경사를 극복해 직선으로 연결하려는 조치다. 따라서 이 구간 철길은 수평을 기준으로 한 경사도가 30%(Per Mil)이다. 철도에서 사용하는 경사도 구배(勾配)는 19%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통상의 원칙이다. 열차 바퀴와 레일 마찰계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구배를 넘게 되면 자칫 열차가 미끄러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기술적으로 30%는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하는 열차 등반 한계 구배다. 이런 까닭으로 이곳을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며, 기관사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구간이기도 하다. 태백선과 나란히 달리는 함백선의 함백역과 조동역 구간은 이런 급경사를 극복하기 위해 파리굴(Loop 식 철도)로 통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파리굴 중 하나다. 이런 점을 상기하면 30%이라는 구배에 대해 이해가 수월해진다.



직육면체 라멘교인 조동철교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이영천 (의왕 철도박물관 촬영)



직육면체 텅 빈 뼈대만 남은, 3층 높이의 벽체 없는 커다란 집기둥이 연속해 서 있는 모습이 연상되는 조동철교 모습이다. ©이영천

### 석탄을 위한 철길

연탄에 대한 추억과 에피소드는 차고 넘칠 정도다. 시인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는 단 3행 짧은 시에서 '연탄재 함부로 밟로 치지 마라'한다. '너는 / (언제)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며 묻는다. 혼신 힘을 다해 나를 태우고 하얗게 재가 되어 본 적이 있느냐고도, 시는 묻는다. 하찮게 보이는 연탄재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삶을 살아 냈다는 생각이다.

연탄을 흔히 구공탄이라 부른다. 통상 19개 구멍이 뚫린 '십구공탄'이라 부른 데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석탄을 가공해 만든다.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은 우리나라 대표적 석탄 산지였다. 태백선은 제천에서 영월, 영월에서 함백, 함백에서 황지, 황지에서 고한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철도다. 석탄과 석회석을 실어 나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석탄이 우리 에너지 원료로 쓰일 때는, 하루 수만 톤을 실어 날랐다.

남북이 분단되고 남한엔 에너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눈 돌린 곳이 강원도 석탄이다.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석탄이 필요했다. 이런 필요로 곳곳에 광산이 개발된다. 강원도는 물론이고 충청도 대천, 경상북도 문경, 전라남도 화순에서도 석탄이 생산되었다. 그중 강원도는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감



경사도가 30%(Per Mil)의 조동철교 구간. 이 구간을 지날 때면 철도 기관사들은 늘 주의를 기울이곤 한다. ©이영천

당해냈다. 태백선은 이렇듯 국가 에너지 총족이라는 필요와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철도다. 조동역에서 자미원역, 민동산역을 지나면 사북역이 나오고 이어 고한역이 나온다. 우리나라 석탄 탄광을 대표하던 '동원탄좌'가 있던 곳이다. 동원탄좌개발주라는 기업이 소유한 탄광이었다.

### 검은 사슴

흔히 어떤 상황이나 누구를 비난할 때 '막장'이란 말을 사용하곤 한다. '인생 갈 곳까지 다 다른 사람이나 혹은 그런 행위'를 비유하는 말로, 본래 뜻은 '갱도 막다른 곳'이다. 하지만 이는 석탄을 캐내어 삶을 영위하려는 광부의 소중한 일터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막장의 작업환경은 무척 열악하다. 갱도 안은 높은 온도에 먼지투성이다. 가스가 누출되어 언제 중독될지 모른다.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한 지보공은 통나무로 만들어 위험하기 그지없다. 갱도가 무너지면 꿈쩍없이 갇혀, 목숨을 잃게 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먼지투성이 막장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는다. 먼지와 탄가루에 '진폐증'에 걸리기도 한다. 이런 최악의 조건과 환경에서 일한다. 장시간 가혹한 노동 조건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족의 생계를 지켜낼 담보 없는 위험에 한 생과 온몸을 내맡긴 꼴이다.



옛 동원탄좌 사무실에 들어선 석탄박물관 옆에 재현한 높은 갱도. 막장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무서운 일터였다. ©이영천

광부 가족들 삶도 무척 열악하다. 사택(舍宅)이라는 곳도 열기설기 바람을 막아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작은 집에선 비가 새는 일이 다반사다. 8평 넓이에 딸린 방 둘, 부엌 하나에 많은 가족이 기대어 산다. 화장실이나 세면장은 공동이다. 아침마다 화장실 앞에선 긴 줄을 서야만 했다. 상수도 공급도 형편없다. 씻지도 못하는 생활이 이어지기도 한다. 빨래를 맘껏 널 수도, 푸른 하늘을 쳐다보는 일도 쉽지 않다. 고지대 탄광은 물류 수송도 여의치 않아 물가마저 굉장히 비싸다. 쥐꼬리 봉급은 받자마자 공판장이나 술집 외상값으로 사라져 버린다. 공판장 운영자도 사장 친인척이 차지하고 앉아있다. 총체적인 수탈구조였다.



석탄박물관 입구에 그려져 있는 광부의 모습. 박물관에는 당시에 사용하던 물건 등을 전시하며, 열악한 작업환경을 보여준다. ©이영천

소설가 한강의 장편소설 「검은 사슴」 공간 배경이 탄광이다. 깊은 갱도 안에 사는 검은 사슴은 항상 빛을 희구한다. 자기의 보물 같은 빨과 이빨을 내어주고서

라도 빛을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빛을 희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삶이다. 검은 사슴은, 검은 탄을 밥으로 삼아야 하는 광부들 모습 그대로다. 탄광촌은 블랙홀 같은 곳이었다. 비인간화의 막장이었다.

### 회사의 횡포

동원탄좌는 사북읍과 고한읍에 걸쳐있는, 단일 탄좌로는 우리나라 최대 석탄 탄광이었다. 1980년 기준 동원탄좌에 딸린 부수된 소규모 탄좌를 합해 5천여 광부가 년 160만 톤, 우리나라 석탄생산량의 11%를 차지할 정도였다. 하지만 임금수준은 매우 열악했다. 1970년대 내내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 1980년 당시 4인 가구 최저임금이 월 24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곳 광부 월평균 임금은 15만 5천 원에 불과하다. 거기에 고용도 불안정하다. 관리자 눈에 들지 못한다면, 언제 건 일터를 잃을 수 있는 고용구조였다.



작업장에 빠르게 진입하거나 채취한 석탄을 수월하게 운반하려 설치한 수직 갱도. 석탄박물관 옆에 남아 있다. ©이영천

설상가상이다. 회사는 일명 국토개발대라는 전과자 집단과 지역 불량배들을 앞세워, 어용노조를 만들어낸다. 어용노조가 중심이 되어, 노조위원장을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를 유지한다. 해마다 임금협상 때만 되면, 3~4개월 전부터 수당 등을 조정해 광부들 임금을 깎아내린다. 임금인상률을 눈속임하기 위해서다. 이런 방법으로 10% 이상 임금이 인상된다 해도, 실질 인상률은 4~5%에 불과했다.

어용노조는 광부 복지개선이나 임금인상, 작업환경개선보다는 회사 측 주장에 동조하기 바쁘다. 노조 대의원 선출 시기가 되면 막대한 돈이 뿌려진다. 선출된 대의원을 어용 노조위원장이 전국 관광지로 끌고 다닌다. 곳곳에서 엄청난 향응이 제공된다.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다가, 선거 날이 되면 탄광 앞에 내려준다. 이런 행태에 광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이제 더는 참거나 눈감고 앉아서, 빛을 희구하지 않았다. 막장에서 시름을 달래는 검은 사슴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다. 오직 싸움만이 있을 뿐이었다. 1980년은 18년 유신독재가 막을 내린 직후다. 그동안 억눌린 폭압에 튀어 오르는 용수철처럼, 전국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매우 드높았던 때였다.

1978년 일어난 '2차 석유파동'으로 에너지 자립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다. 정부는 석탄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민 연료로 자리 잡은 연탄 가격을 억누를 필요성만을 부각하기에 바빴다. 이는 광부들 임금인상 억제라는 극약처방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광부들 요구는 달랐다. 동원탄좌의 경우 40%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그마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어용노조 직무대리였던 전 노조위원장 이재기란 자는, 회사 요구안이었던 20%를 독단적으로 수용하면서 임금협상을 타결 지으려 한다. 광부들이 반발한다.

### 사북 노동 항쟁

1980년 4월 16일 광부들은 어용노조 퇴진과 임금상 40%, 노조 직선제 등을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간다. 4월 18일 항의 집회에서 경찰은, 4월 21일에 예정된 집회 개최를 약속하며 해산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작 21일엔 집회를 원천 불허한다. 광부 수백 명이 탄좌 사무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인다. 경찰은 애당초 약속을 어기고, 시위에 나선 광부들을 촬영하면서 시위 주동자를 색출하려는 증거채집에 나선다. 이에 흥분한 광부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차를 타고 달아나라 한다. 몇몇 광부들이 바닥에 드러누워 도주하려는 경찰 차량을 가로막는다. 그중 한 명이 경찰차에 치인다. 경찰은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버린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광부들이 이성을 잃는다. 여기에 광부 가족들이 가세한다. 시위대는 어느새 6천 명으로 불어나 있다. 인구 3만의 도시였다. 다섯 명 중 한 명은 시위대에 참가한 꼴이다. 그만큼 탄좌의 착취가 극심하다는 방증이다. 시위대가 사북읍 주요 관공서를 점령한다. 사북읍 경찰들은 줄행랑을 치고 말았다.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사북읍은 해방구였다. 그러나 도심에선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다. 공동체 질서가 정연하다. 어용 노조위원장 이재기란 자는 어딘가로 도망치고 없다. 다만, 그의 부인이 광부 가족들 손에 이끌려 탄좌 사무실 근처 전봇대에 묶인다. 언론은 이 모습을 대서특필한다. 질서가 깨어진 무정부상태라 호도한다. 광부들을 폭도로 몰아세운다. 그때도 언론은 영혼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 진실 호도에 바빴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도 없었다. 이들은 언론이 아니었다.

4월 24일까지 진압 나온 강원도 도경 경찰과 극한 대치가 이뤄진다. 투석전이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돌에 맞은 경찰 1명이 사망한다. 경찰과 광부, 그 가족 등 160여 명이 상해를 입는다. 이재기와 노조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광부 이원갑의 중재로 24일 시위는 진정된다. 11개 조항의 타협안이 제시되어 몇 차례 협상 끝에 타결되어 항쟁은 끝을 맺는다.



사북항쟁 당시 동원탄좌 사무실 마당에 몰려든 광부와 그 가족들. 긴박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엿보인다. ©정선균형



사북항쟁 당시 동원탄좌 사무실 마당에 몰려든 광부와 그 가족들. 요구 조건이 담긴 깃발 등이 보이고, 탑에는 새마을운동 구호가 적혀있다. ©정선균형

하지만 권력 실제로 부상하던 집단은 신군부였다. 사태가 진정된 후 '합동수사단'을 꾸려 31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시킨다. 정선경찰서에선 무지막지한, 광부들에겐 치욕스러운 고문이 자행된다. 총칼로 무장한 신군부는 비인간화의 상징이었다. 이들 81명이 군사재판에 회부 된다. 그중 많은 사람이 소요죄와 폭행죄로 2~3년 실형을 살았다. 많은 아픔과 설움만을 남긴 채 사북 동원탄좌 노동 항쟁은 그렇게 막을 내린다.



항쟁 막바지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 마이크를 든 경찰이 광부들을 상대로 뭔가를 설명하는 듯한 모습이다. ©정선균형

### 폐광의 그늘

사북읍과 고한읍은 석탄산업 몰락의 상징이다. 국가도 이곳에 진 빚을 의식했음인지, 이 지역을 배려했다. 그 명목으로 사행산업과 레저 시설이 들어선다. '강원랜드와 하이원리조트'다. 사시사철 뜨내기 같은 부나방들이 강원랜드로 향한다. 이런 시설이 이곳에 어떤 활력을 주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지역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고 생기를 불어넣었는지는 누구도 기늠하지 못한다. 오히려 순박한 지역 인심과 문화를 알량한 펀돈으로 망쳐버린 것은 아닌지? 허풍선이 마냥 잔뜩 바람만 불어넣고, 뒤에서 다른 족속들이 과실만을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털털거리며 달리는 태백선 열차는 오늘도 무심하기만 하다. 높은 산들로 막힌 하늘은 좁기만 하다. 손바닥 하나로 가려지는 사북읍 하늘이다. 사행산업과 레저라는 새하얀 손바닥으로 사북읍 하늘을 가리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이 하늘을 영원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동철교는 라멘교다. 라멘교는 배려하는 다리다. '배려'라는 단어에 여전히 기슴 시려하고 아파하는 지역이다. 사북읍과 고한읍을 꿰뚫고 지나가는 지장천엔 오늘도 석탄 배어든 검은 물이 피눈물처럼 흐르고 있다. 🇰🇷